China Issue

미 · 중 정상회담, 빅딜 없는 정상화된 회담

Analyst 여태경 Tk.yeo@hmsec.com

예정대로 그리고, 예상대로 진행된 미 · 중 정상회담

-5월13일부터 5월15일까지 2박 3일간 미 · 중 정상회담이 베이징에서 개최되었음

-첫날은 인민대회당에서의 공식 국빈 환영 행사, 135분간의 미 · 중 정상 본회담, 천단공원 방문이 있었고, 둘째날은 오전 중난하이에서 정상간 비공식 회동, 오후 미국 대표단과 중국 측 정부 기업 관계자들의 구체적 실무 조율 및 서명식 진행으로 회담 일정 종료

미 · 중 정상회담에서의 성과와 한계

-합의문 발표가 없는 상황에서 언론 보도 등을 통한 양국의 성과는 아래와 같음

-미국: 중국이 미국산 대두, 석유와 LNG 및 보잉 항공기 200대를 구매, 희토류 및 영구자석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 유예·관리, 마약 원료 차단 협력 지속하기로 한 점을 성과로 언급

-중국: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직접 언급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하지 않았음을 강조. 별도로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연기를 협상에 올림

-그 외에도 경제 · 통상 분야에서 기존 합의 이행 지속, 상호 관세 인하 프레임워크 논의 및 양국 경제 무역 협력 확대 합의 등이 언급되었고, 양국간 민간 교류 확대 사항들도 일부 다뤄졌음

-하지만, 이란전쟁 관련 중국 정부의 입장은 예상한 것처럼 대화를 통한 협상을 지지하며 중재자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고, 우크라이나 종전 희망에 대한 입장 언급도 정상회담에서의 통상적인 수준에 그침

-즉, 9년만에 성사된 트럼프의 방중을 통한 양국간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핵심 레드라인인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합의를,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물품 구매 확대를 얻어냈지만 빅딜은 부재했음

5월 미 · 중 정상회담을 통한 양국 관계에 대한 평가

-장기간 미 · 중간 무역전쟁 속에 미국의 대중 규제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미 · 중 디커플링으로 신냉전 상황에서 양국간 더 이상의 규제는 실익 측면에서 효과가 제한적인 점을 인지하고 있음을 지난해 11월의 관세 협상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음

-이번 미 · 중 정상회담은 여느 국가들의 통상적인 정상회담과 별반 차이 없는 공존을 강조하는 회담으로 회귀했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상호간 크게 양보하지 않는 한 서로 기대할 이익의 수준도 제한적이며, 가을로 예정된 양국간 정상회담에서도 빅딜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볼 수 있음

중국 증시에 대한 영향은?

-중국 증시의 양대 악재인 (내부)장기적 부동산 시장 침체와 (외부) 미 · 중 갈등 심화 가능성 중 외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정상화된 미 · 중 정상회담을 통해 사실상 해소된 만큼 중국 증시의 상승에는 긍정적 요인이라고 판단

〈표1〉 미 · 중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 외교부장(왕이)의 기자 간담회 내용 정리

Q1.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전반적인 평가와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A. 이번 회담은 중국의 '제15차 5개년 계획' 시작과 미국의 '독립 250주년'이라는 중요한 시점에 열린 역사적 만남. 9년 만의 미국 대통령 방중을 통해 양국 정상은 약 9시간 동안 소통했고 "중국의 부흥과 미국의 위대함(MAGA)이 상호 성취될 수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새로운 양국 관계의 이정표를 세웠음

Q2. 새로운 양국 관계의 포지셔닝인 '미·중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의 의미는 무엇인가?

A. 향후 양국 관계의 지침이 될 새로운 포지셔닝으로, 중국 측은 1)적극적 안정(상호 의존성을 인정하고 협력을 위주로 회복력 강화), 2)양성 경쟁(제로섬 게임을 지양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공정 경쟁), 3)상시적 안정(정책 연속성을 유지하여 기복 없이 이견을 통제), 4)지속적 안정(상호 핵심 이익을 존중하여 충돌과 전쟁 방지) 네 가지 방향을 제시함

Q3. 미·중 고위급 채널 유지와 향후 교류 일정에 대해 어떤 공감대를 이뤘나?

A. 정상 외교가 양국 관계의 중심추 역할을 지속하기로 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시진핑 주석이 올해 가을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로 합의함. 또한, 정치·외교·경제 실무 팀의 메커니즘을 가동해 협력 리스트는 늘리고 문제점은 줄여 나가기로 했음

Q4. 민간 교류와 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어떤 논의가 있었나?

A. 양국 정상은 '천단(天坛)'을 함께 참관하며 문화적 이해를 넓혔고, 미국 청소년 초청 등 교육·인문 교류를 지속 지지하기로 함. 또한 방중한 미국 기업인들을 시진핑 주석과 리창 총리가 각각 격려하고 접견하면서, 중국 시장의 지속적인 개방과 투자 협력 강화를 약속함

Q5. 가장 민감한 의제였던 대만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주고받았나?

A. 중국은 대만 문제가 내정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이 현재 양안의 현상임을 재확인함. 특히 '대만 독립'과 평화는 절대 공존할 수 없음을 강조했으며, 회담을 통해 미국 측이 중국의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대만 독립을 인정하거나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힘

Q6. 경제·무역 분야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었나?

A. 경제·무역 관계의 본질이 호혜 공영임을 강조하며, 향후 실무 조율을 거쳐 '무역이사회'와 '투자가수회'를 신설하기로 합의함. 양측은 농산물 시장 진입 우려를 해소하고, 대등한 관세 인하 틀 안에서 양방향 교역을 확대하는 등 균형 있고 적극적인 성과를 이끌어냈음

Q7. 중동 정세와 우크라이나 위기 등 국제 문제에 대해 어떤 대화가 오갔나?

A. 중동 정세는 무력이 아닌 대화를 강조하며 미국 이란간 핵 협상을 독려했고, 휴전을 바탕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조속히 재개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음. 우크라이나 위기는 양국 모두 전쟁의 조기 종식을 희망하고 있으며, 복잡한 사안인 만큼 조급함 없이 정치적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소통을 지속하기로 함

자료: 신화사, 현대차증권 정리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작성자 여태경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